

# 제21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2024 THE 21TH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제21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THE 21TH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2024

(The) Nature

주최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협회, 한국조경가협회

주관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운영위원회, (주)환경과조경

후원 (재)늘푸른



# (The) Nature

|    |           |
|----|-----------|
| 5  | 인사말       |
| 6  | 축사        |
| 8  | 주제        |
| 9  | 운영위원·심사위원 |
| 10 | 심사총평      |
| 11 | 심사위원 심사평  |
| 14 | 수상작 패널    |
| 51 | 수상소감      |

|     |  |
|-----|--|
| 대상  |  |
| 18  | Dam Removal Effect                                 |
| 금상  |  |
| 22  | Implantscape: 대한방직 리노베이션                           |
| 은상  |  |
| 26  | Be(e) Around in Aewol                              |
| 28  | Honey Belt   |
| 동상  |  |
| 30  | Resilient Jeju Coast: Forming Vernacular Landscape |
| 32  | 1858—땅의 기억을 읽다                                     |
| 34  | 반지하反臨隄: 상실과 포용, 그 틈 사이로                            |
| 장려상 |  |
| 36  | Brackish Flow: 탄소를 품은 물들임                          |
| 37  | Palimpsest   |
| 38  | 이인삼각: 속도 맞추기를 통한 인간과 자연의 동행                        |
| 39  | Owl about Palhyeon:<br>팔현습지의 '전부'인 수리부엉이에 대하여      |
| 40  | Connectography_Blue Vertex                         |

|    |  |
|----|--|
| 입선 |  |
| 41 | Rhizome City, Liminal Core:<br>도시와 자연의 경계가 허물어진 제3의 공간 |
| 42 | 3-Strategies to Coastal Resilience                     |
| 43 | '터'전의 '틀'을 만들다   |
| 44 | Upcycling Wave   |
| 45 | 다름의 공존   |
| 46 | Re:Suv   |
| 47 | Feel Mine, Fill Mind                                   |
| 48 | Feel and Fill  |
| 49 | 수양화경_생명이 모이는 습지의 복원                                    |
| 50 | 동지: 장항에 틀다   |



# 인사말

좋았다고 자평을 했던 2023년을 보내고 21번째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축제의 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조경의 희망들과 만나는 자리는 늘 즐겁기만 합니다. 올해에도 작년을 능가하는 출품작들을 만났습니다. 그 즐거움이 두 배가 된 느낌입니다.

작년에 즐겨 사용한 ‘기후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극한’이라는 용어가 이제 일상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올해는 ‘열대야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작년과 같은 (더) 네이처(The) Nature를 주제로 제시하면서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운영위원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좋은 결정이었고, 오히려 자연의 가치의 크기를 다시 가능해보고 깨닫는 계기를 만든 듯합니다.

지난해 출품된 작품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읽으며, 다음해에는 이에 더해 더욱 깊이가 있는 작품들이 접수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상작을 보며 그 기대감이 현실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설계안의 깊이를 표현해주었음에 모든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을 대표해 칭찬을 넘어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조경의 미래입니다. 선배들이 기대하고 있는 밝은 미래를 여러분이 현실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대상지와 복잡한 설계 키워드를 두고 뜯구름처럼 열게 그려진 설계안을 눈앞의 구체적인 세상으로 만들기까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학생들을 끌어준 지도교수님에게 감사 را 드립니다. 더불어 운영위원, 작품의 우열을 놓고 고심과 논쟁을 했을 심사위원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21회까지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이 이어져 장강의 물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을 해온 늘푸른 재단과 (주)경동원의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조경학회는 업계와 한 몸임을 증명해주는 (사)한국조경협회와 한국조경가협회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내년에는 한층 더 성장한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 9.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운영위원장·(사)한국조경학회 회장 **김태경**



# 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늘푸른 이사장 노연상입니다.

대한민국 조경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제21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올해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매년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개최를 통해 조경 분야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기후 및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환경조경대전은 (더) 네이처(The Nature)라는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조경은 '인간'과 '자연'의 연결을 통해 도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연이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활동입니다. 그렇기에 조경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 변화, 환경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조경대전이 이를 논의하는 무대가 되어, 우리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늘푸른은 앞으로도 한국조경학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친환경·고효율 기술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경동나비엔'과 '경동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재단으로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조경 분야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조경학회의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수상의 영광을 안은 수상자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재)늘푸른 이사장 **노연상**

# 축사

2000년 '늘푸른 환경조경설계 공모전'으로 시작된 공모전이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으로 발전해 어언 21회를 맞이했습니다. 그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공모전을 주관해온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로 구성된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운영위원회와 환경과조경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꾸준히 후원해오고 있는 늘푸른 재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은 해마다 시의성 있는 주제를 통해 동시대 조경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왔습니다. 또한 학생 간의 학술적, 기술적 교류를 촉진해 한국 조경설계 역량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올해의 주제인 (더) 네이처(The Nature)는 '자연'과 '본질'이라는 의미로, 기후 변화 시대의 환경 문제를 비롯해 자연성 회복, 자연과의 공존,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 등 폭넓은 문제에 대한 독창적인 해법과 상상력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응답한 119개의 참가작에 베인 학생들의 열정과 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판에 표현된 다이어그램과 마스터플랜, 투시도 등의 표현 기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틀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논리와 감각 면에서 상당한 고민과 다양한 시도, 밤샘 노력이 아니고서는 도달하기 힘든 수준에 오른 작품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공모전의 속성상 참가자들이 주제의 독창성에 많은 비중을 두었고, 그러다 보니 댐, 벌, 딱정벌레, 해안가 등 현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실무적 당면 과제와는 다소 동떨어진 지역과 대상을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성과 도시적 사회 문제, 미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도시 공간에 좀 더 주목하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공원 리모델링, 하천 정비 및 간선 도로 지하화와 연계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도심 재개발 등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대상을 다룬다면 실무와의 괴리도 좁히고 디자인적 감각을 훈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상한 팀에게 축하를 전하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상을 못한 팀에게도 위로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시작이고 진정한 승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축하를 들었던 쓴잔을 받았든, 공모에 참여한 많은 학생이 조경설계에 애정과 꿈을 가지고 실무에 진출해 우리와 함께 행복한 조경가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2024. 9.  
한국조경가협회 회장 **안계동**



# 주제

## (The) Nature

네이처Nature는 일반적으로 '자연'을 의미하고 더불어 '본질'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 조경은 자연으로부터 시작하여 급속한 현대 문명의 발전 속에서 상실되어가는 자연성을 지켜주고 이어주는 중요한 균형자 역할을 해 왔다. 최근의 급격한 환경 파괴는 더 이상 지구와 인류가 버티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자연 스스로 치유하거나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조경은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과 문제를 대면하며 자연 속에 숨겨진 수많은 지혜를 찾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는 과거 익숙하게 여겨왔던 자연의 보전과 이용이라는 행위와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조경과 자연에 대한 관계와 접근법을 고민할 수 있다. 자연과 조경에 대한 관계를 되돌아봄과 동시에, 조경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경제적 양극화, 고령화, 공동체 해체, 도시 소멸, 탄소 중립, 재난 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문제에 대한 표피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이전에 대상의 본질을 보다 섬세하게 가독하는 참가자들의 시선 또한 엿보고자 한다.

조경의 시작점이었던 자연성을 다시 돌아보고 그 속에 숨겨진 지혜와 관계를 재발견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살핌으로써 참가자들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상상력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 자연성 회복:** 환경복원, NBS, 탄소중립, 재난재해
- 자연의 지혜:** 자연과의 공존, 전통생태
- 본질적 가치:** 조경의 역할, 현상의 본질, 경관의 재해석
- 창의적 해법:** 새로운 시선, 기술 발전과 미래경관, 상상력
- 사회문제 해결:** 공동체 해체, 고령화, 도시소멸, 경제적 양극화, 사회적 형평성

# 운영위원·심사위원

## 운영위원

### 위원장

**김태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 회장

### 위원

**박재민** 청주대학교 교수, 한국조경학회 기획부회장

**김건우**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조경학회 기획이사

**김근호** 영남대학교 교수, 한국조경학회 영남지회장

**김상욱** 원광대학교 교수, 한국조경학회 호남지회장

**이호영** HLD 대표, 한국조경협회 수석부회장

**박명권**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대표, 한국조경가협회 부회장

**강은비** 재단법인 늘푸른 홍보팀

**남기준** 월간 환경과조경 편집장

## 심사위원

### 위원장

**박명권**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대표

### 위원

**김준연** STOSS 디렉터

**박소현** 코네티컷대학교 교수

**오화식** 사람과나무 대표

**이우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정홍가** 씬지조경 대표

**최혜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 심사 총평

제21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의 주제는 ‘(더) 네이처(The) Nature’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진행됐다. 다소 모호하고 광범위한 공모 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는 크게 다섯 개의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자연성 회복’으로 환경 복원과 NBS, 탄소 중립, 그리고 재난재해에 대한 이슈를 다룬다. 둘째는 ‘자연의 지혜’로 자연과의 공존과 전통 생태에 관한 과제다. 셋째는 ‘본질적 가치’로 조경의 역할과 현상의 본질, 경관의 재해석 등을 이야기한다. 넷째는 조경설계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시선, 기술 발전과 미래 경관, 상상력 등을 포함한다. 다섯째는 동시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 해결’로 공동체의 해체, 고령화, 도시 소멸, 경제적 양극화, 사회적 형평성 등에 대한 과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어느 해 못지않게 많은 119개의 작품이 출품되어 학생들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당초 계획보다 심사 기간을 연장해 깊이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7인의 국내외 저명한 조경가로 구성됐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참가 학생과 관련이 없도록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국토부의 감독하에 엄격하게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기준은 공모전 주제와의 정합성, 대상지 분석 및 해석의 충실성, 개념의 창의성, 설계 과정의 논리성, 개념과 결과물(평면, 이미지 등)의 연관성, 설계 매체의 창의성과 표현의 완성도로 전년과 동일했다.

특히 올해는 점점 고조되고 있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자연성 회복을 이슈로 다룬 작품이 많았고, 작품의 콘셉트나 프레젠테이션 수준도 향상되어 심사 마지막까지도 열띤 토론과 논쟁이 진행됐다. 제출 마감 시간 위반, 패널 및 작품 설명서 미제출, 소속 및 이름 기재 등 공모 지침 위반 사항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결선에 오른 작품을 두고 심사위원의 치열한 자유 토론 과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거의 만장일치로 대상이 선정됐다.

자연이라는 공모 주제와 다섯 개의 소주제를 두고 학생들은 어떤 곳을 설계 대상지로 할지, 대상지가 안고 있는 사회적·환경적 문제는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조경설계는 어떠한가 할지 수차례 고민하고 토론했을 것이다. 다양한 대상지에서 학생들의 고민이 엿보였다. 도심지에서 용도 폐기된 공장 이적지, 오래된 채석장과 폐광산 등의 브라운필드부터 동해, 서해, 남해를 아우르는 해안 지대, 댐이 사라지고 자연의 회복을 기다리는 큰 강줄기, 도시에서 복개되어 사라진 작은 소하천, 수리부엉이와 별들의 터전인 작은 숲과 습지, 소외된 이웃이 사는 반지하 셋방까지 대상지의 유형과 규모가 다채로웠다.

다양한 참가작 중 공모 주제의 해석과 설계 과정, 패널과 설계설명서의 완성도를 심층적으로 고려해 최종 수상작을 선별했다. 대다수 수상작은 공모 주제인 자연을 다양한 시선으로 해석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문제점을 도출했다. 설계 해법을 찾기 위한 대안과 아이디어 역시 풍성했다.

대상작 ‘댐 리무블 이펙트Dam Removal Effect’는 영주댐이 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댐을 개방하고, 댐 해체 잔해를 재사용해 생태 복원을 돕고 동시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 댐 건설 이전의 영주를 기억하게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방류와 댐 해체 이후 생태계 복원 및 공원 조성 프로세스를 면밀하게 제시했고, 댐 건설 이전 내성천의 경관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까지 제안했다. 그 전략들이 공모전 주제인 자연에 가장 부합하는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됐다.

금상작 ‘임플란트스케이프Implantscape: 대한방직 리노베이션’은 대한방직이 이전하면서 버려진 건물들과 공터에 ‘과거의 가치를 이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 유산에 자연을 임플란트한다’는 콘셉트를 제시했다. 식물 자연 순환 시스템 구축과 삼천 생태계의 확장, 정원도시 전주의 정체성 강화, 이용객과 역사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건물 리노베이션 전략을 단계적으로 명료하게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은상작 ‘비 어라운드 인 애월Be(e) Around in Aewol’의 대상지는 벌이 사라져 그 피해와 폐사가 심각한 제주 애월읍이다. ‘꿀벌이 머무는 애월, 애월에서 활동하는 꿀벌, 애월 어디에든 존재하는 꿀벌’이라는 콘셉트로 꿀벌이 다시 서식할 수 있는 적합 지역을 발굴하고, 농부들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해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는 꿀벌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은상작 ‘허니 벨트Honey Belt’는 구 고려시멘트 공장 부지였던 브라운필드를 중심으로 기후 변화로 위기를 맞은 꿀벌을 보호하기 위한 허니 벨트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생태계의 순환과 지역 주민을 위한 상생 전략을 순차적 계획으로 제안한 점이 우수했다.

동상작 ‘리질리언트 제주 코스트: 포밍 버내쿨러 랜드스케이프Resilient Jeju Coast: Forming Vernacular Landscape’는 제주의 자연환경에서 선조들이 남긴 자연 적응 문화를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자연과 토착 문화, 현대적 삶이 공존하는 제주 서부 연안을 도모했다. 바다로 유입되는 용천수의 흐름에 따라 공간을 해안가-조간대-조하대로 구분해 용천수, 원담, 발담 등 제주 특유의 물 순환 시스템을 구축한 전략이 훌륭했다. 동상작 ‘1858-땅의 기억을 읽다’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채석장을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고 대상지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해 지역 재생의 돌파구로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참신했다. 또 다른 동상작 ‘반지하反臨誨: 상실과 포용, 그 틈 사이로’는 장마철 서민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준 반지하 주거 공간을 새롭게 조명했다. 이 공간을 거주민을 위한 도심 속 휴식 공간과 빗물 수용 공간으로 전환해 사람과 자연, 도시 문제를 포용하는 디자인 전략이 호평을 받았다.

해가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무덥고 긴 장마 기간 동안 밤잠을 아끼며 공모전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한 학생 여러분에게 힘찬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어려운 주제를 놓고 마지막 패널과 설계설명서를 완성할 때까지 팀원과 수없이 많은 토론과 협력을 했을 것이다. 결과에 상관 없이 그 지난한 과정을 이겨낸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우승자다. 함께한 과정을 추억으로 삼고 이번 공모전이 앞으로 사회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향한 힘찬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2024. 9.

심사위원장,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대표 **박명권**

# 심사위원 심사평

또한 자연/생태적 콘셉트를 표방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설계안은 여전히 시설물 지향적이거나 인간 중심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우리의 설계 패턴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위성에 젖어 있는 건 아닌지 반추해볼 필요성을 느꼈다. 익숙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그래픽, 전형적인 레이아웃에서 한 발짝 떨어져, 부지가 가진 생태성과 자연성을 숙고하고 부지와 프로그램 간의 관계를 세심히 살피며 독창적이고 맥락에 맞는 설계안을 구상한다면 관계적이고 평범한 다른 대안과 구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참가자가 작품설명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작품설명서도 중요한 제출물 중 하나이므로 이를 통해 설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많은 학생이 작품설명서를 기술 보고서 형식의 글쓰기 형태로 작성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글쓰기 또한 설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인 만큼 디자인 언어가 풍부한 아름답고 시적인 스타일의 내러티브를 보여주는 글쓰기 방식을 시도해보길 바란다. 아름다운 설계 도면만큼이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수상한 모든 팀에게 아낌없는 축하를 보내며, 작품 준비로 고생했을 모든 참가자에게도 격려를 전한다.

## 오학식 사람과나무 대표

119,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놓이면 전화를 하는 곳이다. 공교롭게 올해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에 출품된 작품 수가 119개, 억지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자연이 위급 신호를 보낸다고 느꼈다. 각설하고 이번 공모를 심사하며 작품의 완성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만큼 심사위원의 고뇌와 논쟁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였다.

수상권에 드는 작품을 고르는 것에서부터 순위를 정하는 과정까지 쉬운 부분이 없었다. 한 작품 한 작품을 살필 때마다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이 느껴져 결정이 더욱 쉽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대상을 수상한 댐 리무블 이펙트Dam Removal Effect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 만든 인공 구조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영주 다목적댐의 방류와 해체를 통해 자연으로의 회귀를 통한 생태계의 복원을 다룬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아쉽게 금상을 받은 임플란트스케이프Implantscape: 대한방직 리노베이션은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도심지 내 이전 부지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학생다운 시선으로 잘 풀어냈다.

신기하게도 은상을 수상한 두 작품은 모두 꿀벌을 다루었다. 비 어라운드 인 애월 Be(e) Around in Aewol, 허니 벨트Honet Belt 모두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의 문제를 흥미로운 설계를 통해 해결했다.

마지막으로 수상은 못했지만, 학교에서의 배움을 바탕으로 열정과 노력을 담아 작품을 제출한 모든 참가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조경의 미래다. 모두 수고했다.

## 김준연 STOSS 디렉터

작년에 이어 제21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국내 조경학과 학생들의 관심과 사고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다시 맞을 수 있었다. 주제는 작년과 동일한 (더) 네이처(the) Nature. 그 취지는 단순히 자연을 주제로 다루는 것을 넘어, 조경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경이 전문 분야로서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찰할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내 대부분의 조경학과 학생이 참여해 119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대다수의 작품이 친환경 설계, 폐기된 산업 시설의 재활용, 도심 내 동식물 서식처 복원 등을 주제로 삼았다. 모두 현대 조경에서 다루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적 이슈들이지만, 그중 눈에 띄었던 주제는 댐과 환경 복원에 관한 구상이었다.

댐 철거와 수계 복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분야이지만, 장기적인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서 학생들이 이러한 주제를 작업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신선했다.

심사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낀 점은 한국 조경학과 학생들의 기술이 매우 세련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에 걸맞은 사고의 깊이와 개연성 있는 논리의 전개, 창의적인 사고를 곁들여 설계의 내실을 더한다면 한국 조경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 박소현 코네티컷대학교 교수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에 우수한 작품이 많이 출품됐다. 작년과 동일하게 (더) 네이처(the) nature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대상지를 참신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설계한 작품들을 심사했다. 그 과정에서 부지를 읽는 감각, 연구 역량, 설계 기술, 표현 기법 등 학생들이 다방면에서 한층 발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공모 주제를 깊이 이해하고 단순한 조경설계를 넘어 복원 과학, 보전 생태, 경관 생태 등의 생태적 원칙과 아이디어를 설계 목표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부지 유형, 스케일, 장소를 막론하고 이미 황폐화됐거나 유휴지로 전락한 산업 부지의 복원과 재생을 다룬 작품도 다수 출품됐다. 그러나 일부 작품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강조점을 잃고 다양한 전략을 나열하는 데 그쳐 아쉬움을 남긴다. 그보다는 한 가지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개념-분석-공간화-디자인-실행에 이르는 디자인 과정 전체에 일관성 있게 스며들도록 한 작품이 더욱 설득력 있게 느껴졌다.

공모 주제의 특성 때문인지, 올해는 생물종과 서식처 개선을 위한 작품이 자주 눈에 띄어 반가웠다. 하지만 일부 작품은 내러티브와 설계 논리에 있어 설계를 뒷받침하는 정당성 및 증거의 기반이 될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인용 문헌 등 자료의 대략적인 출처라도 적는다면 설계 논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우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최근 극심한 이상 기후에 맞는 공모 주제는 참여자들에게 탄소 중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법을 제시하게 하며 자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대학교를 졸업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들이 그때와 비교해 훨씬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 매우 자랑스럽고 한편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든다. 주제에 맞게 대상지를 해석하며 풀어내는 능력과 그 내용을 패널에 담아내는 능력까지 훌륭해 이번 공모전을 심사하는 내내 감탄하며 매우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정을 통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뿐 아니라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에 출품한 작품이 모두 탁월했으며 그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이들이 조경 분야에서 펼칠 활약이 기대되며, 많은 학생이 조경에 관심을 갖고 큰일을 해주길 바란다.

**정홍가 삼지조경 대표**  
폭염으로 기억될 이번 여름은 사람, 동물, 식물 모두에게 힘든 기후 위기를 실감하게 했다. 그 때문인지 (더) 네이처(the) nature를 주제로 한 이번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의 여러 응모작에서 기후 위기를 중요 이슈로 다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비 조경인으로서 시대를 앞서 읽고, 10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이번 심사를 통해 조경학도들의 다양한 시선과 신선한 접근 방식을 접할 수 있어 매우 흥미롭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

자연 회복과 인간의 삶을 연결하는 전략에 주목해 심사를 진행했다. 조경설계는 단순히 생태 회복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삶 속에 녹아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조경가다운 시각으로 이를 풀어내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몇몇 작품은 브라운필드 재조성을 주제로 삼았음에도 이 용역을 위한 과도한 시설물 중심의 계획을 세워 오히려 또 다른 브라운필드를 만들어 내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심사 과정에서 흥미롭게도 꿀벌과 땀을 주제로 한 다수의 작품을 비교하며 각기 다른 대상지에 대한 현황 분석과 설계 전략 도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대상작 댐 리무블 이펙트Dam Removal Effect는 생태 복원을 위해 철저히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댐의 잔해를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화려한 마스터플랜보다는 실제적 활용 방안을 담담히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제언하고 싶은 점은 젊은 세대가 조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야의 핵심인 식물에 대한 연구를 더욱 폭넓게 진행하고, 그 식물을 서식처로 삼는 생태계를 위한 기후 위기 대응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도시의 문제를 조명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롭고 역동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식재 전략을 담은 작품을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작품을 준비하느라 고생한 예비 조경가의 건행을 빈다.

### 최혜영 성공관대학교 교수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쳐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심사를 하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멋진 창작품을 만나면 마음이 벅차오르고 삶이 풍성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번 심사에서도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감동은 작품의 수준뿐만 아니라, 창작 과정에서 겪었을 창작자의 고뇌를 생각하며 더 깊어졌다. 지난 몇 달 동안 밤낮으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애쓴 모든 학생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심사를 통해 한국 조경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학생 공모전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았고, 표현 기법뿐 아니라 문제의식, 대상지 선정, 해법 제시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완성도 있는 짜임새를 보여주었다.

작년 심사평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실 (더) 네이처(the) nature, 자연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이미 직간접적으로 자연적 해법을 다루어 왔고 그만큼 익숙하다. 공모전은 새로운 생각과 창의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만큼 참신한 해답을 내놓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우려와는 달리, 눈에 띄는 아이디어가 많았다. 댐 리무블 이펙트Dam Removal Effect는 댐 건설로 사라진 대상지의 본연의 생태성을 회복하는 프로젝트로, 생태 복원을 위한 전략뿐 아니라 방문객의 경험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금상작 임플란트스케이프Implantscape: 대한방직 리노베이션은 산업 유산의 이전 적지(대한방직 공장)를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도시의 정원으로 조성한 점이 돋보였다. 특히 아이디어의 전개 과정을 수준 높은 표현 기법으로 드러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꿀벌 감소 현상을 설계적으로 풀어낸 작품들(공교롭게도 두 작품 모두 은상을 수상했다)도 신선했다.

이번 심사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바로 ‘학생다운’ 작품들이었다. ‘학생답기’에 현실적이지 않거나 완성도가 다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아이디어의 수준과 완성도를 모두 훌륭하게 보여주었다. 폭우로 문제가 됐던 반지하 이슈를 오히려 우수를 안정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 수리부엉이나 바다거북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인간에게도 이로온 공간을 제시하는 아이디어, 폐바지선을 활용해 해양 환경을 개선하려는 아이디어 등은 현실성을 쫓아야만 하는 기성세대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다시 한번 좋은 작품을 제출한 모든 참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과 같은 마음과 열정으로 한국 조경계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

## 2024 THE 21TH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제21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 (The) Nature

### 대상

#### Dam Removal Effect

강현지·박시연·송재영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 금상

#### Implantscape: 대한방직 리노베이션

윤정은·이지원·조미경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 은상

#### Be(e) Around in Aewol

배민주·마서연·문정윤·정선화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조경학전공

#### Honey Belt

홍유진·박다현·오효린  
한경국립대학교 식물자원조경학부 조경학전공  
오병웅 한경국립대학교 조경학과

### 동상

#### Resilient Jeju Coast:

#### Forming Vernacular Landscape

허해찬·김유민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조경학전공

#### 1858-땅의 기억을 읽다

강준성·김재영 국립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부 조경학전공

#### 반지하(反地庫): 상실과 포용, 그 틈 사이로

박서영·양은애·지수연 국립공주대학교 조경학과  
정지원 국립공주대학교 원예학과

### 장려상

#### Brackish Flow: 탄소를 품은 물들임

강구연·이재모·조성준·조현우·최기정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 Palimpsest

박가영·정혜진·박주영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 이인삼각: 속도 맞추기를 통한 인간과 자연의 동행

이규민·이재원·배우영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 Owl about Palhyeon:

#### 팔현습지의 '전부'인 수리부엉이에 대하여

안유영·최화린 경북대학교 산림과학·조경학부 조경학전공

#### Connectography\_Blue Vertex

김틀·윤지성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 입선

#### Rhizome City, Liminal Core:

도시와 자연의 경계가 허물어진 제3의 공간

김예은·권미정·조재은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 3-Strategies to Coastal Resilience

문재희·최예은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조경학전공

#### '타'전의 '틀'을 만든다

윤영지·정두용·홍승원 한경국립대학교 조경학과

육지연·이동주 한경국립대학교 식물자원조경학부 조경학전공

#### Upcycling Wave

김재형·김병준·안승화·채민진

한경국립대학교 식물자원조경학부 조경학전공

#### 다름의 공존

임수아·하지민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Re:Suv

진민서·이윤태 국립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부 조경학전공

#### Feel Mine, Fill Mind

이예나 성공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조경학전공

김예나 성공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최지현 성공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Feel and Fill

박세연·신하를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 수양화경\_생명이 모이는 습지의 복원

전지수·김찬우·김병훈·박태욱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 동지: 장항에 틀다

유호희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전공 석사과정

김환수·김지연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조경학전공